

신장이식 환자의 고유신장에 발생한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 1예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비뇨기과학교실², 병리학교실³

정연순¹ · 신호식¹ · 임 학¹ · 장희경³ · 김택상² · 류현열²

Mucinous Tubular and Spindle Cell Carcinoma of the Native Kidney in a Renal Transplant Recipient: A Case Report

Yeon Soon Jung¹, Ho Sik Shin¹, Hark Rim¹, Hee Kyung Jang³, Taek Sang Kim², Hyun Yul Rhew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Urology², Pathology³,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신장의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은 최근에 정립되어 분류된 신세포암의 일종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은 육종성 변화를 가진 유두모양 신세포암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육종성 변화를 가진 유두모양 신세포암과 달리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은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상적으로 이 둘의 구분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은 3예 보고된 바 있으나 신장이식 환자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환자는 50세 남자로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10년간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오다가 9년 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좌측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신장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측 고유신장에 종괴가 발견되었다.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저등급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a-methylacyl-CoA racemase (AMACR)와 cytokeratin 7 (CK7)에 양성조건을 보였다. 유두모양 신세포암에 특이도와 민감도가 높은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 AMACR이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에서도 양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은 원위세뇨관의 표지자인 AMACR와 근위세뇨관의 표지자인 CK7에 양성을 보여 최근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의 원위세뇨관 기원설에 대한 논란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수술적 병기는 T1bN0M0이었으며 수술 후 추적기간 30개월 동안 재발없이 지내고 있다.

Key Words: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 신종양, 신이식

Mucinous Tubular and Spindle Cell Carcinoma, Kidney Neoplasms